(775)

조선

주체110
(2021)
2

차　례

희세의 정치원로, 다함없는 흠모 · · · · · · · · 1

조선인민군 렬병식의 어제와 오늘 · · · · · · · 10

성황리에 진행된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 · · · · · · · · · · · 18

철강재증산으로 들끓는다 · · · · · · · · 22

례성강을 따라 · · · · · · · · · · · · · · · 24

방직공처녀들의 보금자리 · · · · · · · · · · · 28

박사지배인 · · · · · · · · · · · · · · · · 31

조선옷의 전통을 살려 · · · · · · · · · · · · 32

3대를 이어 · · · · · · · · · · · · · · · · 34

태권도모국의 긍지를 안고 · · · · · · · · · 36

칠보산의 겨울 · · · · · · · · · · · · · · · 38

표지: 미래과학자거리의 저녁　　사진 송대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로숙한 정치가이시며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시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의 전진도상에 겹쌓이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치시며 만대에 길이 전할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한없이 숭고한 덕망으로 만민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탁월한 정치원로》, 《명장중의 명장》, 《성인중의 성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흠모하였다.

많은 나라의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한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훈장과 메달들을 그이께 정중히 드리였다.

그와 함께 세계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어린 선물들을 드리였다.

정당, 사회단체들은 그이를 명예위원장, 명예지도자로 추대하였으며 도시와 대학들에서는 그이께 명예시민과 명예원사, 명예교수, 명예박사칭호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세계 진보적인류는 그이께 지성어린 선물들과 함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을 계속 드리고 있다.

글 김미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희세의 정치원로, 다함없는 흠모

등소평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6월

웨. 웨.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회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8월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3월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0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3월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왕국 국왕으로부터 캄보쟈의 최고훈장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7월

카이손 폼비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으로부터 라오스의 최고훈장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1(1992)년 4월

친선의 금별훈장과 증서
주체96(2007)년 2월 13일
몽골

10월혁명훈장과 증서
주체86(1997)년 10월 9일
로씨야

영예의 큰별훈장 제1급과 증서
주체74(1985)년 11월 16일
에티오피아

대십자독립훈장과 정령문
주체81(1992)년 4월 13일
적도기네

대십자국가훈장과 증서
주체75(1986)년 9월 20일
니제르

국가대장교십자훈장과 증서
주체81(1992)년 12월 17일
말리

련대성훈장과 증서
주체81(1992)년 1월 31일
꾸바

방코크시형성 200돐 기념메달
주체71(1982)년 11월 24일
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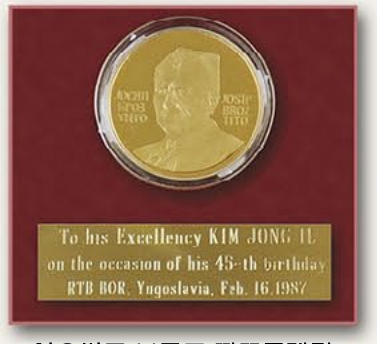
공산당창건 55돐 기념메달
주체69(1980)년 10월 10일
레바논

소까대학창립 기념메달
주체75(1986)년 4월 30일
일본

야깜부종합대학 명예교수
메달과 휘장, 증서, 결정서
주체86(1997)년 10월 15일
베네수엘라

아레끼빠시열쇠와 명예시민증서
주체87(1998)년 1월 30일
뻬루

《2000년 위인》 증서
주체89(2000)년 11월 25일
파키스탄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금메달
주체76(1987)년 2월 16일
유고슬라비아

빠도바종합대학 금메달
주체76(1987)년 7월 30일
이딸리아

쎄뚜발주 쎄이샬시메달
주체81(1992)년 2월 7일
뽀르뚜갈

옹굴룸바쉐메달
주체81(1992)년 9월 11일
나미비아

미합중국 제42대 대통령취임식
기념메달
주체82(1993)년 3월 3일
미국

끼또자치종합대학 명예박사증서,
결정서, 박사복, 모자, 메달
주체90(2001)년 3월 27일
에꽈도르

반파쑈동맹메달과 상장
주체91(2002)년 2월 5일
벌가리아

드골생일 100돐 기념메달
주체79(1990)년 10월 6일
프랑스

에른스트 텔만생일 100돐
기념메달
주체74(1985)년 8월 24일
도이췰란드

마드리드시의회 금메달
주체81(1992)년 7월 28일
에스빠냐

인민회의메달
주체75(1986)년 9월 11일
에짚트

《세계식량의 날》 기념메달
주체72(1983)년 9월 9일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수정꽃병
까타르 빈 알 세이크철근공장 총지배인(인디아사람)
주체98(2009)년 2월

은꽃병
웨. 웨.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
주체96(2007)년 2월

제직화 《송령학수》
온가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체98(2009)년 10월

소라탁상등
필리핀공화국 국회 상원의장
주체95(2006)년 4월

진주보석장식자기꽃병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국회 상원의원
주체104(2015)년 8월

수정공예 《평화의 상징》
벌가리아 훼스또대표단
주체91(2002)년 5월

은공예 《부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주체81(1992)년 2월

탁상시계
미국ABC방송회사 사장
주체84(1995)년 4월

금탁상시계, 금손목시계
스위스 제네바구락부대표단
주체78(1989)년 4월

금단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민족보위성 부상 겸 로므니아군대
최고정치리사회 비서
주체75(1986)년 5월

조선인민군 열병식의 어제와 오늘

2월 8일은 조선의 건군절이다.

지난날 변변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는 것은 일일천추 바라던 소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피어린 항일대전을 이끄시여 조국의 해방(1945. 8. 15.)을 이룩하신 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건군위업을 추진하시였다.

하여 73년전의 2월 8일 평양역광장(당시)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 정규무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열병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병대오를 사열하시고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역광장(당시)에서는 조선인민군창건을 알리는 첫 열병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담보할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의 연설이 끝난 후 광장에 정렬하였던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열병행진이 진행되였다.

신생조선의 장엄한 모습을 시위하는 정규무력의 첫 열병식에 참가한 긍지 안고 서리발총창을 비껴든 열병대오들이 주석단앞을 보무당당히 지나갔다.

이날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자기의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튼튼한 무력적담보를 가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등장하게 되였으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열병식들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이날들은 73년전의 열병광장을 떠나서부터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치렬한 격전장들마다에 승리만을 새긴 조선인민군의 위력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된 공화국의 위상과 더불어 더욱 뚜렷이 과시된 날들이였다.

조선로동당의 자위의 군사로선을 틀어쥐고 적대세력들의 모험적인 도발책동들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의 위용이 열병대오마다에 차넘쳤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일념이 모든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어려있었다.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만큼 발전하여 국가가 직면하고 있거나 맞다들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충분히 통제관리할수 있는 억제력을 갖춘 조선의 모습을 보여준 열병식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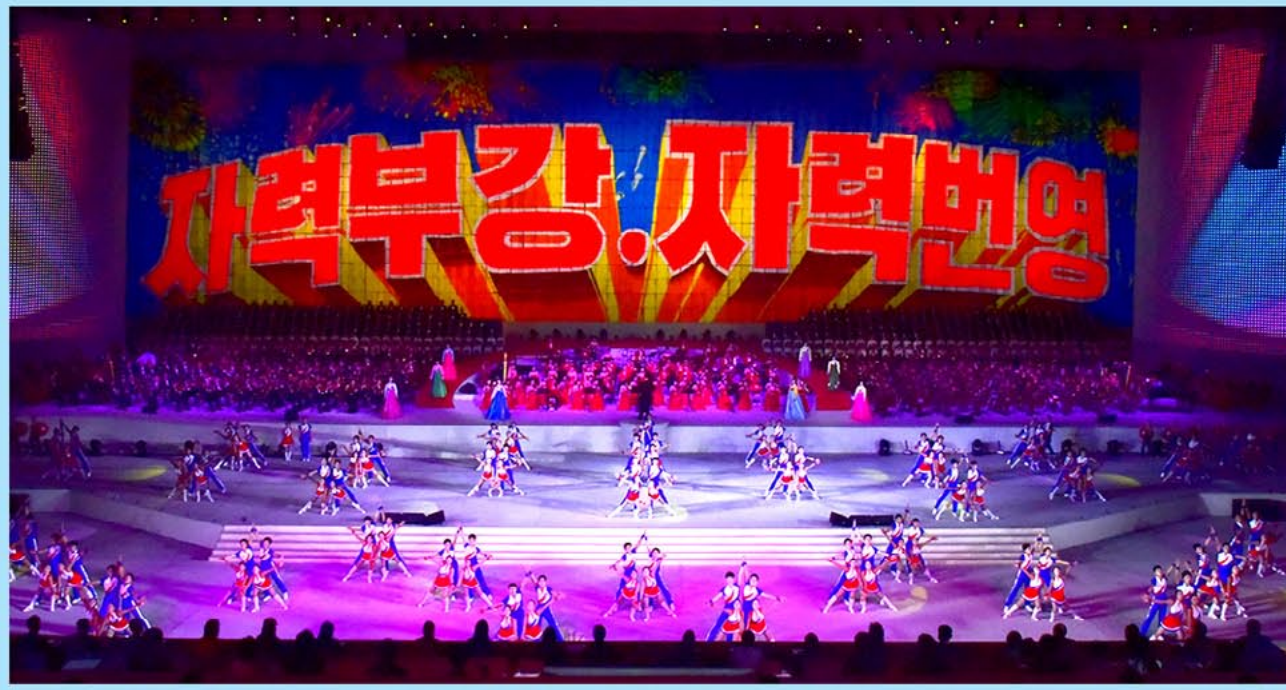
조선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하게 되리라는것을 무게있게 증명한 열병식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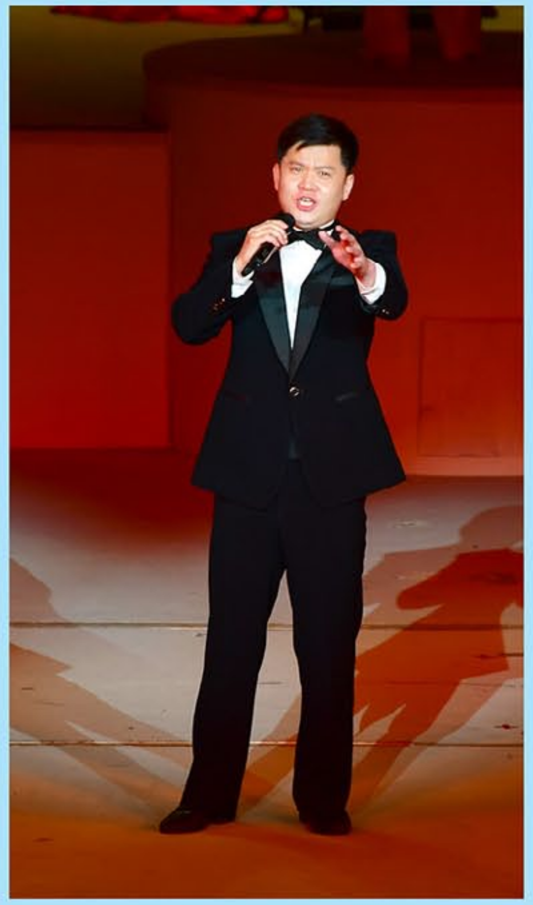
글 최광호

성황리에 진행된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여 지난 1월 13일에 첫막을 올린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24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사진 안철룡, 리명국, 리철진, 손희연





철강재증산으로 들끓는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 초기부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힘있게 견인하는데서 굴지의 대야금기지의 위용을 과시하겠다는 전체 종업원들의 열의가 일터마다에 차넘치고 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철생산체계를 과학기술적으로 훌륭히 완성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철강재생산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산소열법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료, 연료의 배합비률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운영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부쩍 늘이고 있다.

산소분리기분공장의 로동계급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면서 질좋은 산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강철2직장, 열간압연직장의 생산자들도 산소전로와 압연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혁신활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품들의 질과 량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보장부문의 직장들에서도 내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철강재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같이 떨쳐나섰다.

사진 윤정식 글 박병훈

례성강을 따라

례성강청년1호발전소

황해북도경내에서 제일 긴 례성강에는 새 세기에 들어와 건설된 여러개의 수력발전소들이 자리잡고있다.

언제와 함께 생겨난 드넓은 인공호수들로 하여 자연환경이 보다 훌륭히 변모된 오늘의 례성강에서 어제날의 건설과정을 돌이켜보게 하는 자취들은 거의나 볼수 없다.

하지만 례성강발전소 종업원들을 비롯한 당시의 청년건설자들은 자연의 도전을 물리치며 발전소들을 일떠세우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하고있다.

례성강류역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데 대부분이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조성된다.

발전소건설때도 마찬가지였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폭우로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가물막이언제등을 파괴하군 하였다.

그러나 재난만 들씌우던 강을 새 세기와 더불어 락원의 강으로 반드시 전변시키려는 건설자들의 의지를 꺾을수는 없었다.

언제들이 솟아오르는것과 함께 물길굴들이 관통되고 발전기실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송전선들이 산정우로 뻗어갔다.

온 도의 인민들이 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다.

마침내 주체97(2008)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수력발전기지인 례성강청년1호발전소가 일떠서게 되였으며 2년후에는 례성강청년2호발전소도 완공되였다.

그후 주체107(2018)년까지 도안의 건설자들은 례성강을 따라 여러개의 수력발전소들을 더 일떠세웠다.

하여 수수천년 덧없이 조선서해로만 흐르던 례성강이 오늘은 황해북도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이 일대의 큰물피해를 완전히 없애고 농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보배강으로 되였던것이다.

사진 신충일 글 박영조

례성강청년2호발전소언제

례성강청년3호발전소

례성강청년4호발전소

방직공처녀들의 보금자리

평안북도의 소재지에 위치하고있는 신의주방직공장의 종업원들에게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겨났다.

지난해 11월 700여명에 달하는 공장의 합숙생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문화후생시설인 방직원과 함께 일떠선것이다.

압록강반을 거니는 시민들의 찬탄의 눈길을 모으는 이 로동자합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주체107(2018)년 6월 공장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며 로동자들의 생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합숙생들이 당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마련해준 로동자합숙을 몹시 부러워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합숙터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까지 조직해주시였다.

3개의 호동으로 이루어진 합숙과 방직원의 연건평은 2만 9 000여㎡에 달한다.

아담한 호실들과 식당, 도서열람실, 치료실 등이 있는 합숙과 수영장, 운동실, 미용실 등이 갖추어진 방직원은 합숙생들을 비롯한 공장종업원들의 생활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저녁마다 로동자합숙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밤깊도록 울려나오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병훈

박사지배인

평양기초식품공장 지배인 박사 리근일

오늘 평양기초식품공장 지배인 리근일에게서 47년전 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이곳 로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의 모습은 거의나 찾아볼수 없다.

하지만 진지한 학구열과 창발성, 완강성으로 일관된 그의 성미는 발효공학분야에 대한 높은 실력과 풍부한 현장경험, 공학박사의 학위를 소유한 지금도 여전하다.

그는 작업반장, 직장장, 기사장을 거쳐 주체93(2004)년부터 지배인으로 사업하고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장에서는 그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해 여러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개건현대화가 진행되였다.

이때 리근일은 생산에 필요한 여러 첨단설비들까지 자체로 제작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모두를 깜짝 놀래웠다.

결국 그의 주장은 실현되였으며 현대적기술이 도입된 간장, 된장, 기름, 띄운콩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초식품생산공정들이 꾸려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되는 비타민E생산을 위한 첨단설비들이 갖추어졌다.

이 현대화과정은 공장기술집단의 《키》만 자래운것이 아니였다.

과학기술과 《친숙》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장이 바로 자기를 멀리하게 될것이라는 의식을 모든 로동자들에게 새겨주었던것이다.

리근일은 바로 이것까지 정확히 타산하였다.

공장구내에 훌륭한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지고 젊은 로동자들을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고등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된것은 그후의 일이다.

오늘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는 종업원 5명당 1명이 대학졸업증을 지니고있으며 학위소유자대렬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들모두가 자기의 앞날의 모습과 견주어보는 대상이 바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로동자출신의 박사지배인 리근일이다.

사진 최원철 글 리진범

조선옷의 전통을 살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최근년간에도 도시와 마을들마다에서 민족의상차림을 한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다.

유구한 력사속에 발전하여온 조선옷은 성별과 나이, 용모에 구애됨이 없이 조선민족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면서 외모를 한결 돋구어준다.

조선옷은 저고리와 바지, 치마, 배자, 당의, 두루마기 등 그 형태가 여러가지이고 옷의 색갈과 꾸밈새도 다양하여 남녀로소가 계절과 나이에 따라 옷차림새를 멋있게 할수 있다.

하여 오늘날에는 로인들과 녀성들, 어린이들뿐아니라 청장년들속에서도 민족옷차림이 장려되고있다.

특히 녀성들이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모습은 순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의한 조선녀성들의 품성을 그대로 느낄수 있게 한다.

민족의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속에 조선에서는 주체92(2003)년부터 주체108(2019)년까지 해마다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리였다.

여기에는 전문가들뿐아니라 수많은 애호가들이 제손으로 지은 민족의상들을 가지고 참가하였는데 그 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여왔다.

이름난 조선옷점들로는 제작과 관련한 신청이 년중 끊길줄 모른다.

주체105(2016)년에 조선옷차림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사진 리룡운 글 김선경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요술창작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국립교예단 평양교예학원 강좌장 김택성

3대를 이어

제16차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그랜드상과 《세계요술왕》 칭호를 수여받은 김택성

지난 세기 후반기의 조선사람치고 김택성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조선의 문화예술부문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에 교예의 한 분야인 요술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전까지 단순한 손재주와 눈속임으로 엮어진 놀음이나 갈던 요술이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을 계발시키고 지적발전을 추동하는 하나의 예술로 전환된것이 바로 이때였다.

《꽃바구니》, 《사과풍년》, 《비단폭포가 쏟아진다》 등 김택성이 창작한 작품들은 무려 200여편이나 되였다.

그는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배우로서 여러 국제요술축전들에도 참가하여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중의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그후 김택성은 국립교예단 평양교예학원의 요술강좌장이 되여 오늘까지 후비육성사업에 전심하여오고있다.

그가 키운 제자들속에는 두 아들도 있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속에 맏아들 김철은 기능요술에, 둘째아들 김광철은 교감요술에 특기를 가진 요술배우로 성장하였다.

그들형제는 요술은 인간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보여주는 예술로 되여야 한다는 아버지의 지론을 창작생활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공연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국제무대들에서도 명성을 떨쳤다.

나라에서는 그들도 **김일성**상계관인 인민배우로 내세워주었다.

김택성의 맏아들 김철과 그의 아들 김주성

김택성의 둘째아들 김광철과 그의 아들 김광성

지금 김철은 국립교예단의 요술과장이며 김광철은 연출가 겸 요술배우이다.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뒤를 이어 오늘은 김주성과 김광성이 국립교예단의 요술배우가 되였다.

창작년한이 3~4년밖에 안되지만 《물우에서》, 《뻐스와 함께》와 같이 그들이 내놓은 요술작품들은 새롭고 독특하여 관중의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다.

그들은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한 요술의 발전을 주장하고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요술을 더 높은 경지에로 올려세우려는것은 3대를 이어오는 이 요술가가정의 지향이다.

사진 리진혁 글 김선경

태권도모국의 긍지를 안고

지난해 11월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태권도훈련장들과 육체훈련실, 피로회복실, 체육정보실, 체육과학기술보급실 등을 갖춘 태권도훈련관이 새로 준공되였다.

하여 조선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의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다.

이 선수단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태권도선수단의 하나이며 일군들과 감독들, 선수들모두가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선수들을 육체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고있는 선수단에서는 기초기술훈련에 모를 박고 선수들호상간 육체기술지표돌파를 위한 경쟁을 벌리도록 조직하여 그들의 훈련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감독들은 속도와 타격힘, 동작의 정확성, 높은 인내력을 기술발전을 위한 중심과제로 제기하고 교수훈련지도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선수들이 태권도의 원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동작을 숙련하여도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면서 매 선수들의 나이와 심리 등에 맞게 사업을 보다 짜고들고있다.

선수들의 훈련성과도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선수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강한 육체적부담을 이겨내면서 다양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훈련을 정열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선수후비육성사업에도 꾸준한 관심을 돌리면서 전망성있는 선수후비들을 계속 키워내고있는 선수단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국제, 국내태권도강자들을 배출하였다.

2년전의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하금강을 비롯한 여러 우승자들이 이곳의 선수들이다.

사진 리철진 글 박영조

제12차 청소년 및 제7차 로장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의 태권도선수들

칠보산의 겨울

승선대에서 바라본 내칠보의 《눈산》들

조선의 6대명산중의 하나인 칠보산에 눈의 세계가 펼쳐졌다.

웅장하면서도 기묘하고 황홀한 내칠보와 외칠보, 해칠보의 산악과 계곡, 바다가 등이 깨끗한 흰눈과 더불어 새로운 절경을 이루었다.

함경북도 명천군과 화대군, 명간군의 넓은 지역과 어랑군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면적이 수백㎢에 달하는 이 명승지는 계절마다 명칭을 달리하는데 겨울철에는 설백산이라고 불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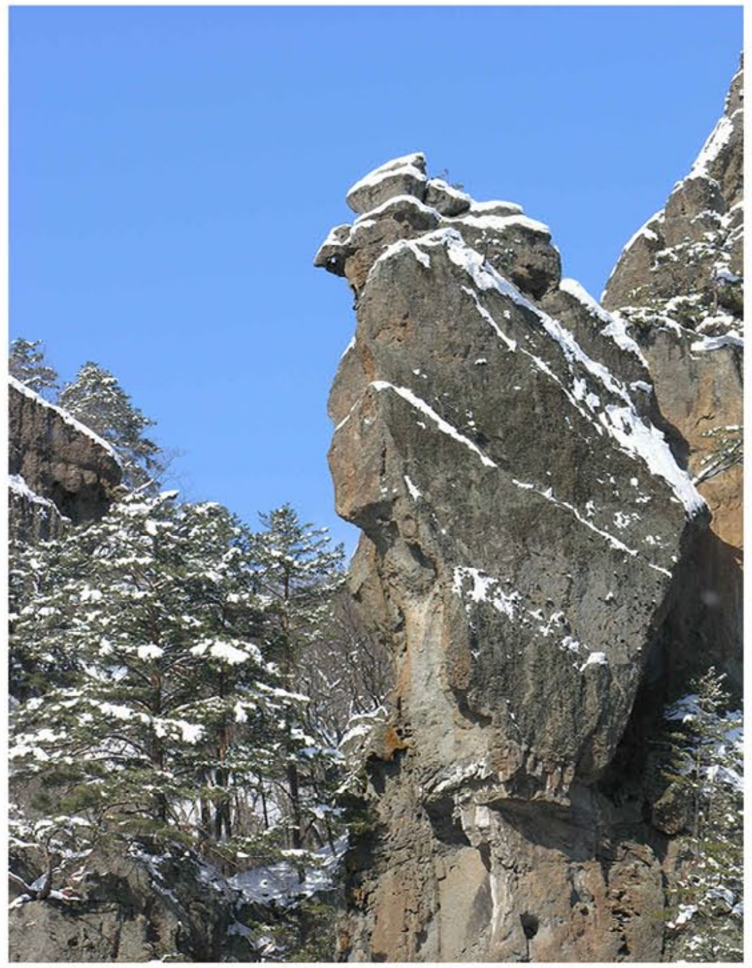
옛날 선녀들이 하늘로 오르군 했다는 승선대에서는 금강골동쪽과 서북쪽에 펼쳐진 일만경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데 겨울에는 기기묘묘한 온갖 형태의 바위들이 정갈한 흰눈과 더불어 펼친 또 하나의 절승경개를 감상할수 있다. 가깝게는 만사봉, 천불봉, 종각봉, 원숭이바위를 비롯한 내칠보의 명소들이, 멀리로는 외칠보의 산악들이 하얀 병풍처럼 둘러서있는 모양이 그대로 장관이다.

애기를 업은 녀인이 큰 보따리를 인 모양과 신통히 같은 바위우에 정갈한 흰눈이 내려쌓이니 오히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듯싶다.

한끝은 산비탈에, 다른쪽 끝은 바다물속에 뿌리를 박은 해칠보의 명소 무지개바위에도 흰눈이 덮여 여름철과 또 다른 정서를 자아내고있다.

우중충한 기암들의 정수리며 절벽들의 중턱과 바위틈 등에 가지마다 흰눈을 이고 서있는 소나무들도 함북금강-칠보산의 겨울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글 리진범



천태만상의 조각미를 펼쳐보이고있는 타종암, 대모암 등 독특한 바위들은 명산특유의 경개를 돋구어주고있다.

비류담

서리꽃 핀 개심사

해칠보의 겨울

낸곳 : © 조선화보사 2021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편집 유충일 13606-21802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리명수의 겨울 사진 공유일